

중국신화의 세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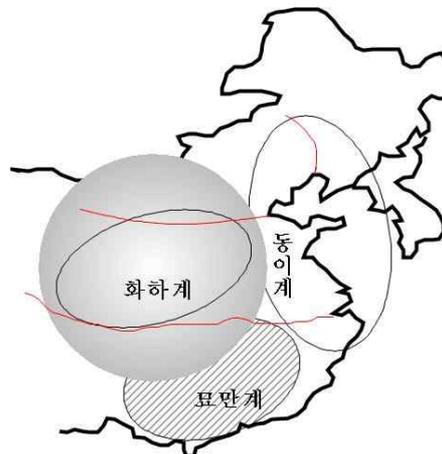
정재서 이화여대 중문학과 교수

1)중국신화-동아시아 문화의 원천

세계 각 민족은 각자 고유의 신화를 갖고 있다. 중국도 예외는 아니나 중국은 단일한 민족 구성체가 아니므로 이때의 중국은 민족 개념이 아닌 국가 혹은 지역 개념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즉 우리가 중국신화를 말한다면 그것은 한국신화나 일본신화처럼 단일한 민족 신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라는 광활한 지역에 살고 있는 다양한 민족들의 신화 전체를 뜻하는 것이다. 중국 대륙에는 오늘날 중심민족인 한족(漢族)을 비롯 만주족, 몽고족, 위글족, 회족(回族), 장족(藏族), 묘족(苗族) 등 55개의 소수민족이 살고 있다. 다시 말해 중국 신화란 한족을 비롯 소수민족 전체의 신화를 아울러 말하는 것이다. 물론 범위를 좁혀서 말한다면 중국 총인구의 93%를 차지하고 있는 한족 사이에서 구전되어오거나 문헌상으로 전해져 오는 신화만을 지칭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한족신화일지라도 고대부터 다양한 주변민족 신화의 영향을 흡수하여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단일 민족신화의 개념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상고시대의 중국문명은 한족 중심의 통일된 형태가 아니라 다양한 지역문명이 대등하게 공존하고 있는 형태였다. 근래의 고고학적 발굴 결과에 따르면 중국문명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처럼 황하(黃河)유역에서 기원하여 그 문명이 변방으로 파급되었던 것이 아니라 요녕(遼寧)이나 장강(長江) 유역 등 변방의 여러 지역에서도 일찍부터 발달한 문명이 있어서 다원적으로 여러 지역문명이 결합한 형태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따라서 이러한 상고문명을 반영하는 중국신화도 결코 한 중심민족의 신화가 아니라 다양한 지역 및 주변민족 신화의 총체로서 파악해야 할 것이다. 결국 위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오늘날 전해져 오는 중국신화는 중국인만의 신화가 아니라 동아시아 여러 민족의 공유 자산이기도 함을 알 수 있다.

2)중국신화의 계통과 분류

광활한 대륙을 무대로 형성된 중국신화는 당연히 한 가지 계통의 신화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 다양한 계통의 중국신화는 크게 지역 및 종족 그리고 신화 내용에 따른 두 가지 방식에 의해 구분해 볼 수 있다. 먼저 지역 및 종족에 의하면 중국신화는 동방 동이계(東夷系) 신화와 서방 화하계(華夏系) 신화, 남방 묘만계(苗蠻系) 신화의 셋으로 나뉘어 질 수 있다.



[신화계통지도]

첫 번째 동방 동이계 신화는 황하 하류 및 산둥반도, 요동반도 등 발해만 일대와 동부 해안지대에 거주하던 동이계 종족 계통의 신화이다. 북방신화도 대체로 이에 포괄된다. 제준(帝俊), 예(羿) 신화 등이 대표적 예이다. 한국 신화도 이 신화 계통과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다.

다음으로 서방 화하계 신화는 황하 중상류 지역으로 후대의 이른바 중원 지역에 거주했던 한족의 선조인 화하계 종족계통의 신화이다. 황제(黃帝) 신화가 대표적 예이다. 바로 이 화하계 신화를 근원으로 해서 주(周)-한(漢) 왕조로 이어지는 중국문명의 정통 라인이 성립된다.

끝으로 남방 묘만계 신화는 장강 이남에 거주했던 묘만계 종족 계통의 신화이다. 염제(炎帝), 치우(蚩尤), 축융(祝融) 신화 등이 대표적 예이다. 그러나 묘만계 신화는 실상 동이계 종족이 남방으로 이주하면서 형성된 것으로 크게 보면 동이계 신화와 계통상에서 차이가 없다고 볼 수도 있다. 실제로 염제와 치우가 활동했던 판천(阪泉)이나 탁록(涿鹿) 같은 지역은 산둥 일대에 있었으며 묘족도 원래는 동방에서 살다가 쫓겨서 남방으로 이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방의 가요인 초사(楚辭)에 등장하는 신의 대다수가 동이계에 속하는 신들인 것도 묘만계 신화가 동이계 신화와 본질적으로 같은 계통임을 알려준다.

이들 세 가지 계통 중 동방 동이계 신화가 내용적으로 가장 풍부하며 남방 묘만계 신화에 미친 영향이 크기 때문에 아주 넓게는 중국신화를 동이계 신화와 화하계 신화의 대립구조로 파악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동이계 신화는 주(周) 나라에 의해 은(殷) 나라가 멸망된 이후 억압되거나 왜곡되어 주변과 민간에 잠복하게 된다. 왜냐 하면 주 문화는 화하계 신화의 정신을 계승하였기 때문이다. 인간의 제도와 합리성을 중시하고 신비주의를 멀리하는 주 문화의 정신은 후일 중국의 정통 이데올로기가 되는 유교를 낳았고 신비주의를 숭상하고 인간중심의 사고를 배격하는 동이계 신화의 정신은 후일 중국의 제도권 문화는 되지 못했지만 무속, 도교 등으로 성립되어 주변문화 및 기층문화의 핵심 내용이 되었다. 결국 화하계 신화와 동이계 신화의 정신상의 대립은 후일 유교와 도교라는 양대 문화를 성립시켜 중국문화나아가 동양문화를 상호보완적으로 발전시켜온 셈이라고 볼 수 있다. 유교가 중심주의적이라면 도교는 주변의 가치를 옹호하며, 유교가 현실주의적이라면 도교는 낭만주의적이고, 유교가 가부장적이라면 도교는 친여성적이며, 유교가 인간중심적이라면 도교는 자연친화적이고, 유교가 이성적이라면 도교는 감성적이며, 유교가 논리와 사변을 중시한다면 도교는 상상력과 이미지에 비중을 두었다. 그러나 양자는 마치 인간의 의식과 무의식의 양면처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로 공존해왔다.

중국신화의 두 번째 분류 방식은 일반 신화학에서 하듯이 신화 내용에 따라 창조신화, 영웅신화, 자연신화 등의 비교적 큰 주제로 나누어 보는 것이다.

먼저 창조신화란 우주, 인류의 발생 및 기원을 설명하는 신화이다. 반고(盤古)의 세계 창조 신화, 복희(伏羲)·여와(女媧)의 인류 창조 신화 등이 대표적 예이다.

영웅신화는 반신반인적, 초인적 존재의 모험, 탐색, 건국의 과정을 다룬 신화이다. 예(羿)가 아홉 개의 태양을 제거하고 괴물을 퇴치했던 신화, 우(禹)가 홍수를 다스렸던 신화 등이 대표적 예이다.

자연신화는 태양, 달, 비, 바람, 조수, 초목 등 자연현상에 대한 이해와 숭배를 담은 신화이다. 태양신 희화(羲和) 신화, 달의 신 항아(姮娥) 신화, 강의 신 하백(河伯) 신화 등이 대표적 예이다. 물론 이밖에 이들 3가지 범주에 포괄되지 않는 신화들이 많이 있으나 생략하기로 한다.

3)중국신화의 자료

중국신화학에서 연구대상으로 삼는 신화자료를 분류하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한 가지는 종족별 분류로서 중국의 본 민족인 한족(漢族)의 신화와 중국 경내에 거주하는 이민족인 55개 소수민족의 신화로 나누는 방식이 그것이다. 다른 한 가지는 전승 방식에 의한 분류로서 문헌신화와 구전신화로 나누는 방식이다. 그런데 양자의 실제 내용은 거의 일치한다. 왜냐하면 한족 신화는 대개 문헌의 형태로 소수민족 신화는 구전의 방식으로 전승되어왔기 때문이다. 물론 일부나마 한족 신화에도 최근 현지조사를 통한 구전 자료가 있고 소수민족 신화에도 자신들의 고유한 문자로 기록했거나 한족 문헌에 수록된 문헌 자료가 존재한다. 따라서 완전히 동일시할 수는 없지만 이 글에서는 중국 문헌신화의 자료를 살핌에 있어서 한족 신화를 중심으로 다루었음을 미리 밝혀둔다.

한족 신화를 중심으로 문헌신화 자료를 살핀다고 할 때 다시 문제가 되는 것은 과연 어느 시기까지의 자료를 신화 자료로서 간주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후술하게 될 중국신화의 개념 범주 문제와도 상관되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신화 자료의 순수성이 비교적 유지되고 있는 한계 시점은 한대(漢代) 이전까지로 설정하고자 한다. 한대에 이르러 중국의 정체성이 확립되면서 다원성에서 일원성으로 신화체계의 재편이 일어나고 유교가 국가 이데올로기로 채택되면서 역사주의적, 가부장적 차원에서 신화 내용에 대한 본격적인 왜곡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대는 신화와 역사, 문명과 야만, 정통과 이단이 교차하는 과도기의 시점이기 때문에 많은 문헌들이 변질을 겪으면서도 여전히 신화의 순수성을 적지 아니 간직하고 있다.

다음의 위진(魏晉) 남북조(南北朝) 시기에 이르러 신화 자료는 당시 발흥한 도교에 의해 보존과 변질의 이중주를 겪는다. 도교는 유교와는 달리 신화 모티프를 잘 계승하여 온존시킨 긍정적인 측면이 많지만 고유의 종교성에 의해 왜곡한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신화 자료를 잘 선별할 필요가 있다. 이 시기의 신화 자료는 주로 지괴(志怪) 소설에 풍부히 남아 있다.

다음으로 당대(唐代)는 고대의 마지막 시기라는 점에서 또 하나의 분기점이다. 이 시기 이후 그나마 남아있던 중국의 정치적, 사상적, 문화적 다양성은 사라진다. 우리는 당대야말로 문헌 자료를 그래도 신화 원전에 가깝게 인식할 수 있는 최후의 시점으로 간주한다.

송대(宋代) 이후 중국이 중세를 거쳐 근대로 나아가는 도상에서 중국은 일원화되고 국수화되어 정치적, 사상적, 문화적으로 탄력성보다는 경직성을 보여준다. 강력한 유교 이데올로기, 중화주의 등의 관념으로 신화 자료는 거의 모습을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다만 이 시기까지는 아직 일실(逸失)되지 않은 고대 문헌이 존재하고 고증의 기풍이 활발하여 주석가들에 의해 새롭게 발굴된 신화 자료가 적지 않다는 점이 다행스러운 일이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기를 초월한 신화 자료로서 거론해야 할 것은 고고학적 유물 자료이다. 비록 이들은 문헌의 형태는 아니나 문헌 신화 자료를 보충하고 입증하는 데에 더없이 유용한 자료이다. 다음은 각 시대별 중국 문헌신화 자료의 현황이다.

1)한대(漢代) 이전

『산해경(山海經)』, 『초사(楚辭)』, 『목천자전(穆天子傳)』, 『서경(書經)』 등.

2)한대(漢代)

『회남자(淮南子)』, 『풍속통의(風俗通義)』, 『사기(史記)』, 『한서(漢書)』, 각종위서(緯書) 등.

3)위진(魏晉) 남북조(南北朝)

『수신기(搜神記)』, 『신이경(神異經)』, 『습유기(拾遺記)』, 『박물지(博物志)』, 『술이기(述異記)』, 『한무내전(漢武內傳)』, 『동명기(洞冥記)』, 『해내십주기(海內十洲記)』, 『유명록(幽明錄)』 등 지괴 소설과 『삼국지(三國志)』, 『후한서(後漢書)』, 『제왕세계(帝王世繫)』 등.

4)당대(唐代)

『고경기(古鏡記)』, 『현괴록(玄怪錄)』, 『전기(傳奇)』, 『유양잡조(酉陽雜俎)』 등 신괴류 전기 소설.

5)송대(宋代) 이후 청대(清代) 까지

『태평광기(太平廣記)』, 『이견지(夷堅志)』, 『유설(類說)』, 『노사(路史)』, 『도장(道藏)』, 각종 『산해경(山海經)』 주석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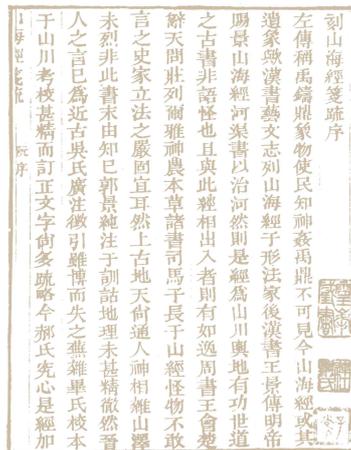
6)기타

청동기 명문(銘文), 화상석(畫像石), 벽화, 백화(帛畫) 등 각종 고고 유물자료.

..... * 『산해경(山海經)』은 어떠한 책인가?

『산해경』은 중국의 대표적인 신화집이다. 대체로 기원전 3-4세기경에 무당들에 의해 쓰여진 이 책에는 중국과 변방 지역의 기이한 사물·인간·신들에 대한 기록과 그들에 대한 그림이 함께 실려 있다. 이 책이 만들어진 동기에 대해서는 무당들의 지침서라는 설이 가장 유력하고 고대의 여행기라는 설도 있다. 근대 이후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책은 종교적으로 샤머니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산신에 대한 제사에서 쌀을 바친다든가, 곤륜산(崑崙山)과 같은 세계 대산, 건목(建木)과 같은 세계수에 대한 숭배, 가뭄 때 희생되는 무녀(巫女)의 존재 등으로 미루어 그러한 판단이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이 책은 샤머니즘이 성행했던 고대 은(殷) 왕조의 문화 내용을 많이 보존하고 있다. 은 왕조의 조상신인 왕해(王亥)·제준(帝俊) 등에 대한 신화는 다른 고서(古書)에서 잘 보이지 않는데 『산해경』을 통해서 그 내용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은(殷) 및 동이계(東夷系) 민족의 특징적인 문화현상으로 간주되는 조류숭배와 관련된 신화내용도 많이 담고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산해경』에 대해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책이 단순히 오늘날의 중국신화와만 상관되는 것이 아니라 중국 인근의 여러 민족들, 한국·일본·월남·티벳·몽고 등 동아시아 전역의 고대문화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산해경』 신화가 형성되던 시대의 대륙은 결코 오늘날과 같은 하나의 중국이 존재했던 장소가 아니고 수많은 종족이 이합집산을 거듭했던 무대였기 때문이다. 우리가 『산해경』을 중국신화집으로만 보지 않고 동아시아 고대문화의 원천이자 상상력의 뿌리로 간주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산해경 원전

4)중국신화의 상상세계

중국신화에서 전개된 상상세계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존재에 대한 상상

1)초자연적 존재에 대한 상상

*초자연적 상위 존재:

창조신

- 사후에 몸이 세상 만물로 분화된 태초의 거인 반고(盤古)
- 진흙으로 인류를 창조하고 천재지변을 다스린 대모신 여와(女媧) 등.



[여와]

자연신

- 태양신 희화(羲和)
- 달의 신 항아(姮娥)
- 바람의 신 풍백(風伯)
- 비의 신 우사(雨師)
- 구름의 신 운사(雲師)
- 바다의 신 우호(禹號와 우강(禹疆)
- 황하의 신 하백(河伯) 등.



[하백]

문명신

- 최고신이자 뇌신(雷神)이기도 한 황제(黃帝)
- 농업과 의학의 신인 염제(炎帝)
- 전쟁과 대장장이의 신인 치우(蚩尤) 등.



[치우]

기타

- 죽음과 생명의 여신인 서왕모(西王母)
- 저승의 신인 태산부군(泰山府君)과 토백(土伯)
- 사랑의 신인 무산신녀(巫山神女)
- 태양과 경주를 한 거인 과보(夸父) 등.



[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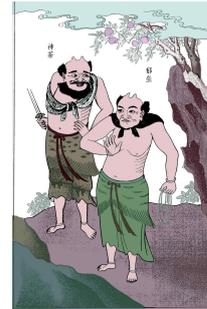


[서왕모]

1) 초자연적 존재에 대한 상상

*초자연적 하위 존재:

- 귀신의 우두머리인 신도(神荼)와 울루(鬱壘) 형제,
- 귀신을 잡아먹는 탄사귀(吞邪鬼)
- 도깨비인 이매(魑魅)와 망량(魍魎)
- 가난뱅이 귀신 궁귀(窮鬼), 탐욕의 화신 도철(饕餮)
- 아이들을 놀라게 하는 소아귀(小兒鬼) 등.



[신도와 울루]

2) 인간에 대한 상상

*상위 인간:

영웅

- 아홉 개의 태양을 쏘고 괴물을 퇴치한 예(羿)
- 농업을 발명하고 주(周) 민족의 시조가 된 후직(后稷)
- 파 민족의 시조가 된 늑군(廩君) 등,



[예]

시조모

- 은(殷) 민족의 시조모인 간적(簡狄)
- 주 민족의 시조모인姜嫄(姜嫄) 등



[간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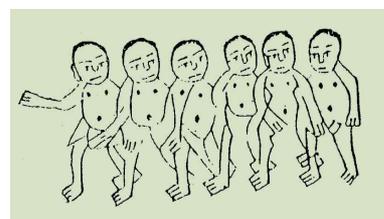
임금

- 성군인 요(堯), 순(舜), 우(禹), 탕(湯).

*하위 인간:

이방인

- 키가 큰 대인국(大人國)
- 난쟁이 소인국(小人國)
- 팔이 긴 장비국(長臂國)
- 다리가 긴 장고국(長股國)
- 귀가 큰 섭이국(聶耳國)
- 가슴에 구멍이 뚫린 관흉국(貫胸國)
- 언어들이 사는 저인국(氏人國) 등.



[소인국]

괴인

- 이빨이 끌처럼 생긴 착치(鑿齒)
- 웃으면 입술이 올라가 얼굴을 가리는 공거인(龕巨人) 등.

3)사물에 대한 상상

*길한 사물:

신조

·봉황

·서왕모의 사자인 삼청조(三靑鳥)

·태양의 정령인 삼족오(三足鳥)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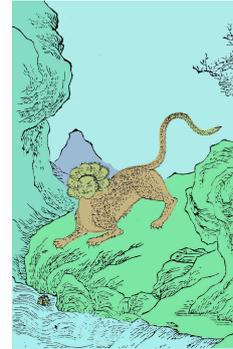
신수

·용

·기린

·곤륜산(崑崙山)을 지키는 개명수(開明獸)

·타고 다니면 오래 살게 된다는 길량(吉量) 등.



[개명수]

*불길한 사물:

괴물

·코끼리를 삼키는 뱀 파사(巴蛇)

·어린애 울음소리를 내는 식인 동물 알유(窶窶)

·머리가 아홉 개 달린 탐욕스러운 뱀 상류(相柳) 등



[상류]

2. 공간에 대한 상상

1)하늘에 대한 상상

·칠성신(七星神)이 거하는 북두성(北斗星)

·별의 신들이 사는 28개의 별자리

·견우(牽牛) 직녀(織女)가 건너는 은하수

·항아(姮娥), 옥토(玉兔), 두꺼비가 사는 달

·삼족오가 사는 태양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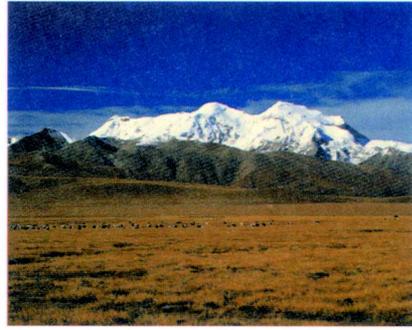
[항아와 옥토]

2) 땅에 대한 상상

*지상공간:

낙원

- 신들의 낙원인 곤륜산
- 물질이 풍요롭고 즐거움이 넘치는
질민국(戡民國), 제요야(諸夭野),
도광야(都廣野), 종북국(終北國),
화서씨국(華胥氏國) 등



[곤륜산]

*지하 공간:

지하세계

- 죽은 자가 가는 유도(幽都)
- 죽은 자를 심판하는 곳인 태산(泰山) 밑 등.

3) 물에 대한 상상

*해수 공간:

- 발해의 낙원 삼신산(三神山).

*육수 공간:

- 하백의 거소인 황하(黃河)
- 아황(娥皇)과 여영(女英)의 거소인 상수(湘水) 등.



[봉래산]